■ 민족문화연구 제94호(2022.2.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53-187.
http://doi.org/10.17948/kcs.2022..94.153

이승휴의 국사편년과 역사의식

박대재(朴大在)*

목 차

1. 머리말
2. 국사 편찬의 전거 자료
3. 국사의 편년과 檀君紀元
4. 정통론적 역사의식과 小中華
5. 맺음말

국문초록

李承休는 『제왕운기』에서 역대 군왕의 연대 편년을 위해 노력하였다. 단군이 堯 원년 무진년에 개국하여 1,048년간 다스리다 은퇴한 지 164년에 기자가 와 스스로 입국하였고, 기자조선이 928년간, 위만조선이 88년간 이어졌다고 하여 고조선사의 연대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기초로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한 태조 18년(935)이 단군 원년 무진년으로부터 3,268년이 되는 해라고 하여 檀君紀元에 의해 역사적 의의를 부각하였다. 『제왕운기』는 단군기원이 나타난 현존 최고의 기록으로 이를 역산하면 기원전 2333년이 단군 원년이 되어 오늘날과 같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이승휴는 단군을 국사의 開祖로, 기자를 小中華의 시조로 함께 존숭하였다. 소중화를 중심으로 한 정통론적 역사의식은 박인량의 『고금록』, 김부식의 『삼국사기』 등 기자조선을 중시한 선행 역사서의 인식이 투영된 결과이다. 이승휴의 역사의식은 기자에 앞서 단군을 국사의 시원으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사대주의라고만 볼 수 없으며, 중국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과 조선을 구분해보는 이원적 세계관인 소중화에 그의 역사관이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중화는 이승휴의 유가적 역사의식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고려 전기의 다원적 세계관을 발전시킨 이원적 역사의식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이승휴, 『제왕운기』, 단군, 기자, 위만, 전조선, 후조선, 단군기원, 소중화.

1. 머리말

이승휴(1224-1300)의 『제왕운기』는 충렬왕 13년(1281) 3월에 製進되었다. 이 책이 진주에서 왕명으로 초간된 것은 충렬왕 21-22년(1295-1296)의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전하는 판본은 초간본이 아니라 중간본인 공민왕 9년(1360) 이승휴의 조카사위인 安克仁이 경주에서 간행한 것이며, 三刊本은 조선 태종 13년(1417)에 간행되어 현재 널리 유통되고 있는 영인본[1]의 저본이 되었다.

『제왕운기』는 초간본의 跋文에서 '歷代韻紀'로, 중간본의 발문에서 '歷代帝王韻紀'라 칭해지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 권문해의 『大東韻府群玉』이나 『고려사』 열전과 조선 후기 『增補文獻備考』에서는 '帝王韻記'로 서명이 표기되었다. 『제왕운기』의 명칭에 '歷代'가 붙은 것이나 '記'로 표기한 예가 자주 보이는 것은 『제왕운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승휴의 저술이 근대에 다시 조명받기 시작한 것은 1939년에 黃義敦이 『조선일보』에 『제왕운기』와 『動安居士集』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하면서부터다.[2] 황의돈은 이승휴의 문집인 『동안거사집』을 학계에 소개한 장본인이기

1) 朝鮮古典刊行會 編, 『動安居士文集·帝王韻紀』, 朝鮮印刷株式會社, 1939;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帝王韻紀·動安居士文集』, 亞細亞文化社, 1973. 重刊本은 木板本이고 三刊本은 活字本이라 글자체와 판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김경수, 「帝王韻紀의 硏究—板本을 중심으로—」, 『帝王韻紀』, 역락, 1999, 27-33면 참조. 통행본 『제왕운기』에 후인이 첨삭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이종문, 「『帝王韻記』의 原典에 對한 몇 가지 疑問點」, 『고려시대 역사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아직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2) 황의돈, 「歷代 興亡의 일편시사 昭明正確한 「제왕운기」—특히 단군·발해사의 시정에 대해서—」, 『朝鮮日報』 1939년 2월 17일; 「高麗刊本 動安居士集(上)(下)」, 『朝鮮日報』 1939년 6월 13일·14일; 『海圓文稿』(하), 문원사, 2007, 42-55면.

도 한데, 이를 계기로 1939년 9월에 조선사편수회 편수관 中村榮孝의 주도로 『동안거사집』과 『제왕운기』가 함께 묶여서 朝鮮古典刊行會 叢刊 제1집으로 영인되었다.[3]

『동안거사집』에는 『제왕운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글이 몇 편 있다. 이승휴가 尹珤, 李㥄, 鄭玿에게 보낸 서간문은 『제왕운기』 초간본 간행에 대한 감사장인데 조판 과정과 교정 사항을 아는 데 필요한 내용이다.[4] 또한 권4의 「賓王錄」은 지원 10년(1273) 원 세조의 황후와 황태자 책립식 축하 사행에 書狀官으로 참여했던 이승휴의 여행기로 현존 最古의 使行錄이다.[5] 「빈왕록」의 마지막에는 원종 15년(1274) 6월 원종이 승하하자 다시 원에 告訃하러 간 경위와 충렬왕의 귀국 및 즉위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제왕운기』 하권 마지막 원종대 기록의 속편이거니와 원의 賓禮를 이해하는 데도 소중한 사료이다.

그동안 이승휴의 역사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왕운기』에 나타난 유교적 지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6] 『제왕운기』에 대한 평가는 자주적인 민족의식의 발로[7]인가 아니면 사대주의의 합리화[8]인가를 둘러싸고 논의가 첨예하였다. 전자에서는 주로 단군조선(전조선) 인식에서 민족의식을 찾고, 후자에서는 주로 원간섭기 당대사 인식을 사대주의와 연결해 본다.

---

3) 1939년 朝鮮古典刊行會 영인본은 『動安居士文集』 1책, 『帝王韻紀』 1책, 「帝王韻紀・動安居士集の解說」 등으로 구성 발행되었다. 일각에선 대종교 계열 학자들에 의해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고 보기도 하지만(조남호, 「1930년대 대종교 계열 학자들의 이승휴와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仙道文化』 28,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2020), 이승휴의 저술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황의돈이나 최익한을 대종교 계열의 학자로 보기는 어렵다.

4) 晉陽府(진주) 書記 鄭玿에게 보낸 서간문(與晉陽書記鄭玿書)에서 이승휴는 초간본 하권 맨 앞에 '地理紀' 3자가 빠졌다는 것과 단군 기록 앞에 '前朝鮮紀' 4자가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두 가지 교정 사항은 중간본과 삼간본에서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5) 강석근, 「이승휴의 시문학 고찰」, 『동악어문론집』 22, 동악어문학회, 1987; 진성규, 「李承休의 『賓王錄』 연구」, 『白山學報』 85, 백산학회, 2009.

6) 김인호, 「이승휴의 역사인식과 사학사적 위상」, 『震檀學報』 99, 진단학회, 2005; 박인호,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7) 하현강, 「高麗時代의 歷史繼承意識」, 『梨花史學硏究』 8, 이화여대 사학연구소, 1975.

8) 김철준, 「蒙古壓制下의 高麗史學의 動向」, 『考古美術』 129・130합, 한국미술사학회, 1976; 『韓國史學史硏究』, 서울대 출판부, 1990.

그러나 『제왕운기』는 역대기라는 점에서 통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왕운기』 하권의 제목 '東國君王開國年代'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승휴는 역대 군왕의 연대 편년에 큰 관심을 두었다.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통해 단군에서 개시된 국사의 편년 체계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다소 간과하였다. 또한 이승휴의 역사의식은 선행 역사서의 인식이 투영된 시대적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승휴의 역사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제왕운기』 저술에 기초가 된 선행 역사서와 함께 단군조선부터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맥락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먼저 『제왕운기』 저술에 전거가 된 선행 사료에 대해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이승휴의 역사의식을 대변하는 단군기원 인식과 소중화의식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사 편찬의 전거 자료

이승휴는 『제왕운기』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A. 삼가 國史에 근거하여 각 本紀와 殊異傳에 실린 바를 두루 채록하고 堯·舜 이래 經傳·子史를 참조하되 허튼 말은 없애고 바른 이치는 취하여 그 사실을 펼쳐 노래함으로써 興亡의 연대를 밝히니 모두 1천 4백 60言이다.[9]

이에 따르면 이승휴의 국사 편찬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사료를 참조하여 각 군왕의 흥망 연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일차 근거 사료가 된 국내 사료는 『제왕운기』가 편찬된 충렬왕 13년(1287) 이전에 편찬되었던 국사(실록·통사)와 전기류(본기·수이전) 등인데 아래와 같은 사서들이 알려져 있다.

---

9) 『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幷序, "謹據國史旁採各本紀與夫殊異傳所載 參諸堯舜以來經傳子史 去浮辭取正理 張其事而詠之 以明興亡年代 凡一千四百六十言".

〈표 1〉『제왕운기』 이전 고려시대 역사서

서명	찬자	편찬연대	비고
七代實錄	黃周亮 등	덕종 3(1034)경	태조-목종
古今錄	朴寅亮	문종대(1046-1083)	
新羅殊異傳	朴寅亮	문종대(1046-1083)	『해동고승전』 인용
編年通載續編	洪灌 등	예종대(1105-1122)	
三國史記	金富軾 등	인종 23(1145)	
編年通錄	金寬毅	의종대(1147-1170)	
王代宗錄	金寬毅	의종대(1147-1170)	
毅宗實錄	文克謙 등	명종 16(1186)	
東明王篇	李奎報	명종 23(1193)	舊三國史(東明王本紀)
海東高僧傳	覺訓	고종 2(1215)	
歷代歌	吳世文	고종 6(1219)	詠史詩
明宗實錄	崔甫淳 등	고종 14(1227)	이규보 편찬 참여
三代實錄	李藏用・柳璥・金坵 등	원종 8(1267)	신종-희종-강종
高宗實錄	柳璥・元傅・金坵 등	충렬왕 3(1277)	「忠憲王實錄」으로 개찬
古今錄	元傅・許珙 등	충렬왕 10(1284)	관찬
國史	吳良遇 등	충렬왕 12(1286)	원에 보내기 위해 왕명 편찬

이 밖에도 『현종실록』, 『덕종실록』 등 역대 실록과 璿源錄 등이 알려져 있으며,[10] 鄭可臣(1224-1298)의 『千秋金鏡錄』이나 이를 증수한 閔漬(1248-1326)・權溥(1262-1346)의 『世代編年節要』 등도 참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편찬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11]

10) 고려 전기의 실록 편찬에 관해서는 김상기,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 출판부, 1985, 709면 및 정구복, 「高麗朝 史館의 實錄編纂」, 『韓國中世史學史(Ⅰ)』, 집문당, 1999, 127-131면 참조.

11) 고려 후기의 역사서 편찬에 관해서는 김상현, 「高麗後期의 歷史認識」, 『韓國史學史의 硏究』(한국사연구회 편), 을유문화사, 1985, 70-76면 참조.

일반적으로『삼국유사』도 일연(1206-1289)이 활약한 충렬왕대『제왕운기』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삼국유사』의 前後所將舍利 및 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서 제자 無極(1251-1322)의 附記가 확인되어 일연 입적 전에『삼국유사』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삼국유사』의 초간은 일연 입적 후 1295년-1322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12]『제왕운기』편찬 당시『삼국유사』를 참조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왕운기』하권의 注文에서 직접 인용한 전거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제왕운기』(하권) 인용 전거

전거	인용 부분	주요 내용	비고
本紀	前朝鮮紀	桓因-檀雄天王-檀君	檀君本紀
尙書疏	後朝鮮紀	箕子의 朝鮮 受封	
檀君本紀	七十國	夫婁의 출자	
東明本紀	〃	金蛙王과 東扶餘의 기원	
賈耽	〃	北扶餘의 위치(遼濱)	古今郡國志
東明本紀	〃	沸流王 松壤의 출자	
本紀	高句麗紀	解慕漱와 柳花의 만남	東明本紀
文順公東明詩	〃	解慕漱의 출자	東明王篇
五代史	〃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	
五代史	渤海紀	渤海의 위치	
唐書	本朝紀	唐 肅宗(忠王)	
洪璹 撰 世紀	〃	唐 忠王의 松岳山 유람	編年通載續編
本紀	〃	龍王이 景康에게 이른 말	
史臣曰	〃	王姓	

이 가운데 本朝紀에 인용된 홍관의「세기」,「본기」,「사신왈」등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고려 전기에 편찬된 사서에 들어있던 태조의 선대

12) 김상현,「『三國遺事』의 刊行과 流通」,『韓國史硏究』38, 한국사연구회, 1982; 박대재,「『三國遺事』판본의 몇 가지 문제점」,『點校 三國遺事』, 고려대 출판부, 2009.

에 관한 기록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홍관의 「세기」는 『편년통재속편』 중 고려 역사를 서술한 속편의 편목일 것으로 보인다. 『편년통재속편』은 1116년 예종이 『편년통재』[13]를 보고 홍관에게 명해 삼한 이래 사적을 모아 편찬한 것인데,[14] 「세기」는 바로 삼한 이래 사적 중 고려 세가에 해당하는 속편의 편목일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소개한 사서 가운데 현재 전하는 것은 『신라수이전』(逸文), 『삼국사기』, 「동명왕편」, 『해동고승전』 뿐이다. 이 가운데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서사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니와 내용에서도 『제왕운기』와 통하는 면이 많아 그동안 비교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제왕운기』는 단군조선(전조선)부터 고려 원종대까지를 다룬 歷代詠史詩이고 「동명왕편」은 고구려 동명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한 斷代敍事詩라는 점에서 둘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역대 군왕의 연대를 밝힌 통사라는 점에서는 『삼국사기』나 현재 전하지 않지만 『고금록』, 『편년통재속편』, 『편년통록』, 「역대가」, 『국사』 등 통사와 비교하는 것이 더 온당할 것이다.

『제왕운기』는 시적 형식에서 오세문의 「역대가」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추정된다. 집필 동기와 중국사를 다룬 점에서는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開元天寶詠史詩」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제왕운기』가 역대사를 다루었다는 점에는 오세문의 「역대가」에 더 근접해 있다고 이해된다.[15]

오세문의 「역대가」는 역대의 변천을 노래한 시가의 효시이며,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승휴의 『제왕운기』, 申得淸의 「歷代轉理歌」 등이 고려시대의 역대가류로 손꼽힌다.[16] 『제왕운기』가 '歷代韻紀' 내지 '歷代帝王韻紀' 등으로

---

13) 章衡이 北宋 熙寧 7년(1074) 편찬하여 조정에 바친 편년체 통사로 帝堯에서 宋 英宗 治平 4년(1067)까지의 일을 서술하였다. 元祐 3년(1088) 族父 章粲이 序를 쓰고 간행하였다. 원래는 총 15권이었으나 현재는 권1 帝堯에서 권4 晉 武帝 太康 원년 경자(280)까지의 宋本 잔본만 전한다. 『編年通載(存四卷)』, 四部叢刊三編史部, 上海書店, 1985.

14) 金烋의 『海東文獻總錄』에는 洪灌의 『編年通載續編』을 『編年通載』로 기재하였다. 『제왕운기』에는 '洪瓘'으로 표기하였지만, 『고려사』에는 '洪灌'으로 나온다.

15) 강석근, 「응제시(應製詩)의 관점에서 살펴본 『제왕운기』와 이승휴의 역사인식」, 『한국고대사 사료로서의 제왕운기』(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편), 세창출판사, 2019, 91면.

불린 것이나 '紀'를 '記'로도 많이 표기한 것은 그 성격이 넓게 보아 歷代記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盤古로부터 天皇氏, 地皇氏 등 중국 고대 제왕들의 신이한 사적들을 약술하는 것으로 시작함으로써, 동명신화도 그에 견주어 인정될 수 있는 신성한 사적임을 드러내려 하였다. 중국 신화만이 아니라 한국 고대의 신화도 신성하다고 본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我國)'도 중국과 같은 신성한 나라에서 출발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17]

오세문의 「역대가」 역시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중국의 반고를 역사의 기원으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B. 본조의 명사 오세문이 歷代歌를 지어 大金 貞祐 7년 己卯(1219)로부터 거꾸로 세어 4만 9천 6백여 년 전 반고에 의해 開闢이 된 戊寅에 이른다.[18]

이승휴의 『제왕운기』 상권 역시 혼돈에서 반고가 난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三五曆紀』와 『通鑑外紀』에 근거해 반고 생후 1만 8천세 되는 해에 천지가 나뉘고, 또 1만 8천세 되는 해에 반고의 몸이 나뉘어 五岳·海·日·月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고려시대 역사시에서 중국의 반고를 기원으로 서술하는 것은 일반적인 본새였던 것 같다.

이승휴가 반고에 관해 서술할 때 근거로 삼았던 『삼오역기』는 三皇과 五帝에 관한 역사서로 삼국시대 吳 徐整(222-280)이 편찬하였다. 반고와 삼황오제를 시작으로 일월성신 등에 관해 서술하였는데, 반고의 천지개벽 전승은

---

16) 정재호, 「歷代歌類攷」, 『語文論集』 9, 민족어문학회, 1966, 71-76면. 1219년(고종6)에 지어진 오세문의 「역대가」를 역대가의 효시라고 보면서 1193년 지어진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역대가의 하나로 보는 것은 연대상 모순된 서술이다. 이규보의 「동명왕편」도 중국의 盤古로부터 서술이 시작되고 있지만 주요 내용은 동명왕의 사적이기 때문에 중국과 동국의 역사를 나란하게 서술한 오세문의 「역대가」나 이승휴의 『제왕운기』와 같은 범주로 묶을 수 있을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 노명호,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東國李相國集』(역사학회 편, 한국고전심포지엄 시리즈 1), 일조각, 2000, 51-52면.

18) 『三國遺事』 권3, 塔像4 迦葉佛宴坐石, "有本朝名士吳世文作歷代歌從大金貞祐七年己卯 逆數至四萬九千六百餘歲 爲盤古開闢戊寅". 金 宣宗의 연호 貞祐는 1213년 9월부터 쓰이다가 5년째 되는 1217년 8월 興定으로 改元되었다.

最古의 반고신화로 중국 고대 신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19] 원서는 일찍이 없어졌고 그 일문 10여 조만 唐代 이후 서적에 인용되어 전한다. 반고가 난 후 1만 8천세에 천지가 개벽하였다는 『삼오역기』의 문장은 『開元占經』, 『藝文類聚』, 『太平御覽』 등에 인용되어 있다.[20]

이승휴도 이러한 후대의 類書에 인용된 『삼오역기』의 문장을 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왕운기』의 반고 관련 주에서 언급한 "三五曆紀曰 歲在攝提 元氣肇始"는 『法苑珠林』 권4에서 인용되었는데,[21] "歲起攝提 元氣啓肇"'라고 하여 자구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반고의 원년을 攝提格의 해 즉 寅年에 비정한 것으로, 앞서 오세문의 「역대가」에서 무인년에 반고가 개벽하였다고 한 것과 서로 통한다.

『삼오역기』와 함께 참고한 『통감외기(자치통감외기)』는 南宋의 劉恕가 1078년경 편찬한 『자치통감』의 외편으로 包犧氏로부터 상고사를 서술하였는데, 周 厲王 이전의 기년은 여러 설이 있어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유서는 요·순 150년, 하 432년, 상 629년, 주 공화 원년(己未) 이전 281년 등의 역년을 적산하여 얻은 1,492년에 의해 요 원년을 무진년으로 비정하였다. 『통감외기』는 『제왕운기』 하권에서 단군 원년을 堯 원년 무진년에 비정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22]

『제왕운기』 상권에서 중국의 역사를 반고로부터 시작하였듯이, 하권에서는 단군으로부터 국사를 서술하였다. 특히 반고의 세수를 1만 8천이라고 밝힌 것처럼 단군의 '享國' 연대도 1,028년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상권에서 반고 이하 삼황오제의 연대를 적기하였듯이,[23] 하권에서는 단군 이

19) 袁珂, 『中國神話傳說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 24면.

20)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 文海出版社, 1967, 2367면. 『三五曆紀』의 逸文은 清 馬國翰의 『玉函山房輯佚書』에 14조, 清 王仁俊의 『玉函山房輯佚書補編』에 3조가 추가되어 모두 17조가 전한다.

21) 王仁俊, 『玉函山房輯佚書續編三種』, 上海古籍出版社, 1989, 328면.

22) 방선주, 「韓·中 古代紀年의 諸問題」, 『아시아문화』 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7면; 박대재, 「檀君紀元과 「古記」」, 『韓國史學報』 61, 고려사학회, 2015, 19면.

23) 盤古 이하 理(在位) 연대를 "盤古(18,000년)-天皇(18,000년)-地皇(18,000년)-人皇氏(45,600년)-有巢(백여년)-燧(8만년)-伏羲(1,260년)-神農(426년)-黃帝(100년)-小昊(84년)-顓頊(78년)-帝嚳(7?년)-唐堯(100년)-虞舜(50년)"이라고 서술하였는데, 燧 이전 연대는 기록마다 다르다고 하였다. 이후 三皇五帝의 연대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데, 帝嚳의 연대는 판본상 글자가 빠져 뒷자리가 보

하 역대 군왕의 연대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다. 이는 하권의 표제 "東國君王開國年代"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승휴의 관심이 연대 비정에 있음을 시사해 준다.

3. 국사의 편년과 檀君紀元

『제왕운기』의 국사 편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단군 원년을 요 원년 무진년에 비정한 점이다. 단군이 "並與帝高[堯]興戊辰" 즉 중국의 요임금과 나란히 무진년에 일어났다고 하여 단군 원년을 무진년에 비정하였다. 단군 원년 무진설은 李穡의 「周官六翼序」, 權近의 「應製詩」,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확인된다.

『동국통감』에 이르러 단군 원년이 요 원년이 아니라 요 25년으로 바뀌는데, 간지는 여전히 무진년으로 변화가 없다. 이는 『동국통감』이 『통감외기』가 아니라 邵雍(邵康節, 1010-1077)의 『皇極經世書』(經世曆)의 기년을 좇으면서 요 원년을 갑진년으로 본 데서 비롯된다. 소옹의 기년설은 南宋 金履祥의 『通鑑前編』(1264년) 이후 청대까지 일반화되었고, 국내에서도 그의 이학이 성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면서 조선 후기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다.[24] 『동국통감』에서 정립된 단군 원년=요 25년 무진년설이 근대 이후 단군기원의 기준(기원전 2333년)이 되었다.[25] 『제왕운기』와 『동국통감』이 근거한 역서에 따라 요 원년과 요 25년으로 차이가 있지만, 단군 원년 무진년설은 『제왕운기』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다.

단군의 연대에 대해 『제왕운기』 본문에서는 "享國一千二十八"로 나오지만,

이지 않는다.

24) 박대재, 앞의 글, 2015, 9면.

25) 이홍직, 「檀君神話와 民族의 理念」, 『國史上의 諸問題』 1, 국사편찬위원회, 1959; 『韓國古代史의 硏究』, 신구문화사, 1971, 34면. 한편 리상호, 「단군 설화의 년대 문제」, 『력사과학』 5, 조선력사편찬위원회, 1962, 93면에서는 『제왕운기』에서 단군기원을 "요 25년 무진년"에 처음 설정하였고 이것이 이후 모든 사서에서 채택한 단군기원 연대라고 하였다. 하지만 『제왕운기』에서는 단군과 요가 같은 무진년에 일어났다고 하였으며, 요 25년 무진년을 단군 원년으로 처음 비정한 것은 『동국통감』이다.

주에서는 「본기」를 인용하며 "理一千三十八年"이라고 하였다. 본문의 1,028년은 『제왕운기』를 인용한 『응제시주』, 『동국통감』, 『역대세년가』 등에 모두 1,048년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오류가 분명해 보인다. 『제왕운기』 상권에서 중국의 唐堯 원년 戊辰으로부터 周武王 원년 己卯까지의 연수가 100(堯)+50(舜)+432(夏)+629(殷)+1(周武王원년)=1,212년으로 계산되어, 단군(전조선)의 연대 1048(향국)+164(은퇴)=1,212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로 보아 1,028년은 1,048년의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왕운기』에서는 한 무제 원봉 3년(108 BC)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 신라가 건국되는 한 선제 오봉 원년(57 BC)까지는 72년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계산에 의하면 52년이 되어야 한다. 단군의 연대에 들어가야 할 20년이 한사군 시기에 잘못 더해진 것이다.

『제왕운기』에서 위만조선의 개국 연대를 한 고제(고조) 12년 즉 기원전 195년으로 편년한 것은 새로운 점이다. 『사기』 조선전에서는 위만이 왕이 된 시기를 "惠帝・高后시대"(孝惠高后時)라고 표현하여 정확한 연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고후는 혜제(195-188 BC) 즉위 후 섭정한 呂太后의 시호인데, 혜제의 아들인 小帝 恭(188-184 BC)과 弘(184-180 BC) 때에도 섭정하였다. 따라서 "효혜・고후시"를 기원전 195-180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기』에서 "효혜・고후시"란 용법이 혜제 재위기간에만 보이기 때문에 기원전 195-18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26] 위만의 개국 연대를 현재의 통설과 같이 기원전 195년으로 편년한 것은 현전하는 자료에 의하는 한 『제왕운기』가 효시이며, 이는 이승휴가 국사 편찬에서 어디에 역점을 두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다.

위만조선에 대한 인식은 『삼국사기』 연표에서도 보이지만 삼국 이전의 연대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27] 이에 반해 『제왕운기』에서는 삼국 이전의 연대를 정리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

26) 김정배, 「史記 朝鮮列傳 註釋」,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 1, 국사편찬위원회, 1987, 31면.

27) 『三國史記』 권29, 年表上, "海東有國家久矣 自箕子受封於周室衛滿僭號於漢初 年代綿邈文字踈略固莫得而詳焉 至於三國鼎峙則傳世尤多 新羅五十六王九百九十二年 高句麗二十八王七百五年 百濟三十一王六百七十八年 其始終可得而考焉 作三國年表[唐賈言忠云 高麗自漢有國今九百年 誤也]".

천왕조에도 단군을 암시하는 존재인 '仙人王儉'이 보이지만,[28] 아직 단군조선으로까지 체계화되지 않았거니와 연표에서는 단군을 생략하고 기자를 해동 역사의 시원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제왕운기』나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고조선(전조선)부터 서술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왕운기』는 단군의 전조선을 국사의 맨 앞에 위치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연대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을 보여준다.

『제왕운기』의 편년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 부분은 신라 경순왕이 귀부한 고려 태조 18년(935)을 "단군 원년 무진으로부터 모두 3,288년"이 되는 해로 파악한 점이다. 3,288년은 앞서 검토한 연대 교정을 고려하면 3,268년이 되어야 정확하다.[29] 이처럼 『제왕운기』의 연대에 오산이 있는 것은 이승휴가 편년에 고심했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라가 고려에 귀부한 태조 18년에 대해 단군 원년을 기준으로 연도를 적산하여 3,268년이라 보는 것은 檀君紀元(檀紀)에 의한 기년 방식이다. 단군기원은 현전 역사서 가운데 『제왕운기』에서 처음 보인다. 935년이 단기 3,268년이라는 것을 역산해 보면 단군 원년 무진년은 기원전 2333년(3268년-935년)이 된다. 이는 근대 이후 단기의 기준년과 동일한 것으로, 결국 단기의 효시는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단군기원은 白文寶(1303-1374)가 공민왕에게 올린 상소에도 보이는데, 3,600년이 1大周元이라는 천수순환설에 입각해 당시가 단군으로부터 3,600년이 된다고 하였다.[30] 이는 천수설에 입각한 추상적인 기년관이지만 당시 단기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

28)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21년,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不可復都 築平壤城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險". 仙人王儉은 충숙왕 12년(1325) 李叔琪가 찬한 「趙延壽墓誌」에서도 "平壤之先 仙人王儉"으로 보이는데 천 살을 넘게 살았고 산신이 되었다고 한 점에서 단군과 연결된 존재로 이해된다.(서영대, 「檀君關係 文獻資料 硏究」 『檀君—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 출판부, 1994, 62면)

29) 단군(1,048)+164+기자(928)+위만(88)+52+신라(992)-5년(시대 사이 중복연수)=3,268년

30) 『高麗史』 卷112, 列傳25 白文寶, "後上疏言事曰 國家世守東社文物禮樂有古遺風 不意寇患屢作紅巾陷京 乘輿南狩 言之可謂痛心 今當喪亂之後民不聊生宜霈寬恩以惠遺黎 且天數循環周而復始 七百年爲一小元積三千六百年爲一大周元 此皇帝王覇理亂興衰之期 吾東方自檀君至今已三千六百年 乃爲周元之會 宜遵堯舜六經之道 不行功利禍福之說 如是則上天純祐陰陽順時國祚延長."

『삼국유사』 고조선조 인용 「古記」에서 단군의 御國 연수를 1,500년, 은퇴 후 연수를 1,908년으로 기록한 것도 단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1,500년과 1,908년을 합산하면 3,408년이 되는데, 이를 「고기」가 근거한 『大衍曆』[31]에 따라 계산하면 단군 원년 경인년으로부터 고려 태조가 즉위한 서기 918년 무인년까지의 연수이다. 이는 고려가 건국한 918년을 단기에 의해 의미 부여한 것이다.

「고기」의 성격에 대해선 특정 사서인지 고기록의 범칭인지 논의가 분분하지만,[32] 고려의 건국을 단군의 조선 개국과 연결해 본 것은 고조선 계승의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고기」에서 단군 원년을 경인년에 비정한 것은 단군 원년을 무진년으로 본 『제왕운기』나 『삼국사기』보다 시기적으로 썩 앞서 편찬된 기록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제왕운기』의 단군 기록에서 인용한 「본기」도 「고기」와 비슷한 성격의 사료로 이해되는데, 여기서도 단군의 연대를 "理一千三十八年"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역시 「고기」의 1,500년과 마찬가지로 단기를 염두에 두고 단군의 연수를 정확히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기」의 1,038년에 대해 1,028년을 1,048년으로 교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20년을 더해 1,058로 고쳐봐야 하며, 이를 통해 보면 「본기」는 『古本竹書紀年』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연구가 있다.[33] 하지만 「본기」의 1,038년을 1,058년으로 수정해 볼 별다른 근거는 없다. 오히려 『세종실록지리지』 평양부에서 「본기」와 비슷한 내용의 「단군고기」를 인용하면서 향국 1038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원래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

31) 『大衍曆』은 唐 開元 15년(727) 密教僧 一行이 奉勅撰한 曆書로 원서는 전하지 않지만 주요 내용이 『新唐書』 曆志에 실려 전한다. 歐陽脩는 당대 역법 가운데 一行의 『開元大衍曆』을 가장 높이 평가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놓았는데, 특히 『대연력』 曆議편에서는 周 武王의 克殷 연대 "歲在鶉火"(歲星紀年)를 처음으로 己卯年(干支紀年)에 비정하여 송대 이후 역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삼국유사』 인용 「고기」에서 단군 원년을 경인년에, 기자가 조선에 온 周 武王 원년을 기묘년에 비정한 것도 『大衍曆』의 영향이다. 박대재, 앞의 글, 2015.

32) 김정배, 「檀君神話와 관련된 『古記』의 性格」,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이강래, 「『三國遺事』 인용 「古記」의 성격」,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1996; 김상현,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韓國古代史研究』 74, 한국고대사학회, 2014.

33) 原田一良, 「『本紀』檀君卽位年の復元」, 『朝鮮學報』 184, 朝鮮學會, 2002, 26-27면.

1,038년은 1,048년보다 10년 적은데, 1,048년이 단군 원년을 무진년으로 설정한 연수이므로 1,038년은 단군 원년이 10년 내려온 무인년에 비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군 원년 즉 요 원년을 무인년에 비정한 기년은 南宋 羅泌의 『路史』(1170년)에서 비롯된 것이다.[34] 단군의 연대와 관련해 『제왕운기』 본문에서는 1,048년이라고 하고, 주문의 「본기」에서는 1,038년이라 한 것은 근거한 기년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나필의 『노사』가 도가의 입장에 선 역사서라는 점에서 「본기」 찬자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제왕운기』 인용 「본기」(단군본기)의 저자와 성격에 대해 이승휴와 교유가 깊었던 柳璥(1211-1289)의 저작으로 보며, 황해도 문화현 구월산 일대의 단군신앙을 중심으로 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한 연구[35]가 나왔다. 이승휴는 원종 5년(1264) 李藏用(1201-1272)과 유경에게 求官詩를 바치고 그들의 추천으로 慶興府 書記에 임명될 수 있었다.[36] 1280년 이승휴가 실정을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파직되었을 때 아픈 몸을 이끌고 위로하러 온 유경에게 감사를 표한 이승휴의 시가 『동문선』에 실려 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유경과 이승휴가 깊은 교유 관계에 있었던 점은 분명하나 단군과 관련된 유경의 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다만 유경이 이장용과 함께 삼대실록 등 역사 편찬에 참여하였다거나, 이장용이 『노사』의 문장을 시에 인용한[37] 사실은 「본기」의 찬자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제왕운기』에서 인용한 「단군본기」, 「동명본기」 등은 명칭상 기전체 역사서의 편명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1286년(충렬왕 12) 吳良遇가 왕명으로 편찬한 『國史』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국사』는 현재 전하지 않아 체제와 내용

34) 박대재, 앞의 글, 2015, 24면.

35) 김남중,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의 저자와 성격」, 『한국학연구』 74, 한국학연구소, 2020, 5-37면.

36) 이승휴가 유경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승휴의 좌주인 崔滋와 유경의 좌주인 崔璘이 모두 琴儀의 문생이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형우, 「13세기 고려 지식인 이승휴의 對元인식」,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3, 286-287면.

37) 『櫟翁稗說』 後集2, "文眞有三角山文殊寺長篇詩 (…) 羅氏路史載人有不改家火至五世 其火色正赤如血文眞用此事以言長明燈也". 文眞은 李藏用의 諡號이다.

을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를 '삼국사'라고도 칭한 것이나 이제현・백문보 등의 『국사』가 기전체 사서였다는 점은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하다.[38] 또한 1284년 원부・허공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고금록』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역시 전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허공은 이장용・유경과 함께 삼대실록을, 원부는 유경과 함께 고종실록을 편찬한 경험이 있던 사관 출신으로 이승휴와도 접점이 있던 인물들이다.

『고금록』, 『국사』 등이 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제왕운기』는 충렬왕 때 단군을 국사의 기원으로 체계화하고 단군 원년을 기준으로 연대를 헤아리는 단기 인식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현전하는 最古의 자료라는 데 사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제왕운기』에서 단군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선행 역사서의 편년 기록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승휴가 직접 인용한 홍관의 「세기」는 앞서 보았듯이 『편년통재속편』의 일부로 보이는데, 『편년통재속편』은 전하지 않지만 그 원전인 『편년통재』를 통해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장형의 「進編年通載表」와 章粲의 「刊印編年通載序」에 의하면, 帝堯로부터 송 영종 치평 4년(1067)까지 총 3,400년이라고 하였다. 치평 4년은 고려 문종 21년(1067)이고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귀부한 태조 18년(935)까지 단군으로부터 3,268년이라고 하였으니, 그사이 132년을 더하면 문종 21년의 단기는 정확히 3,400년이 된다. 이처럼 이승휴가 태조 18년을 단기로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은 『편년통재』나 『편년통재속편』과 같은 선행 사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상의 서술을 토대로 『제왕운기』 하권에 나타난 동국군왕개국연대(간지)를 현재의 서기 체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왕운기』(하권)의 국사 편년

군왕(시대)	연수	개국(재위) 기간	비고

38) 이승휴가 『제왕운기』 초간본을 본 후 李懿에게 보낸 서간문(『動安居士集』 寄晉陽牧伯李尙書諱懿書)에서 언급한 "漢陽 吳學士"가 오양우일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檀君(前朝鮮)		1048	堯 원년 戊辰-殷 武丁 8년 乙未	1028→1048
			기원전 2333년-1285년	
		164	隱退(阿斯達山神) 기간	
箕子(後朝鮮)		928	周武王 원년 己卯-(漢高帝 12년 丙午)	
			기원전 1122년-195년	
衛滿(3世)		88	漢高帝 12년 丙午-漢武帝 元封 3년 癸酉	
			기원전 195년-108년	
四郡-新羅		52	自分爲郡至羅起 計年七十二筭零	72→52
新羅		992	漢宣帝 五鳳 원년 甲子-後唐 末帝 淸泰 2년 乙未(我太祖十八年也 自檀君元年戊辰至此 凡三千二百八十八年)	3288→3268
			기원전 57년-935년(단기 3268년)	
			高句麗 705년(漢 建昭 2년 甲申-唐 總章 원년 戊辰)	37BC-668
			後高句麗 28년(唐 大順 원년 庚戌-梁 貞明 4년 戊寅)	890-918
			百濟 678년(漢 鴻嘉 3년 癸卯-唐 顯慶 5년 庚申)	18BC-660
			後百濟 45년(唐 景福 원년 壬子-淸泰 3년 丙申)	892-936
			渤海 242년(周 則天武后 원년 甲申-太祖 8년 乙酉)	684-925
本朝	태조	26	契丹 神冊 3년(朱梁 貞明 4년) 戊寅-	918-943
	혜종	3	石晉 天福 8년(遼 會同 6년) 癸卯-	943-945
	정종	5	晉 開運 2년(遼 會同 8년) 乙巳-	945-949
	광종	27	漢 乾祐 2년(遼 天祿 3년) 己酉-	949-975
	경종	7	趙宋 開寶 8년(遼 保寧 7년) 乙亥-	975-981
	성종	17	宋 興國 6년(遼 乾亨 3년) 辛巳-	981-997
	목종	13	宋 至道 3년(遼 統和 15년) 丁酉-	997-1009
	현종	23	宋 祥符 2년(遼 統和 27년) 己酉-	1009-1031
	덕종	4	宋 天聖 9년(遼 重熙 원년) 辛未-	1031-1034
	정종	13	宋 景祐 2년(遼 重熙 4년) 甲戌-	1034-1046
	문종	38	宋 慶曆 4년(遼 重熙 16년) 丙戌-	1046-1083
	순종	4개월		1083

	선종	12	宋 元豊 7년(遼 太康 9년) 癸亥-	1083-1094
	헌종	2	宋 紹聖 원년(遼 大安 10년) 甲戌-	1094-1095
	숙종	11	宋 紹聖 2년(遼 壽昌 2년) 乙亥-	1095-1105
	예종	18	宋 崇寧 4년(遼 乾統 5년) 乙酉-	1105-1122
	인종	25	宋 宣和 3년(遼 保大 2년) 壬寅-	1122-1146
	의종	25	金 皇統 6년 丙寅-	1146-1170
	명종	28	金 大定 11년 庚寅-	1170-1197
	신종	8	金 承安 2년 丁巳-	1197-1204
	희종	8	金 泰和 4년 甲子-	1204-1211
	강종	3	金 大安 3년 辛未-	1211-1213
	고종	47	金 貞祐 원년 癸酉-	1213-1259
	원종	16	己未-	1259-1274

위의『제왕운기』편년은 현행 국사 편년 체계와 거의 일치한다. 단군조선의 개국 연대 기원전 2333년, 위만조선의 개국 연대 기원전 195년 등은 선행 역사서의 기록을 통해서는 전혀 비정할 수 없었던 연대라는 점에서『제왕운기』의 사학사적 위상은 낮지 않다.

다만 발해의 건국 연대 684년은 현행 698년보다 14년 앞선 것인데, 이에 관해 선행 연구[39]에서 언급되었지만 그 배경은 별로 설명되지 못했다. 발해의 멸망 연대도 925년이라고 하여 현행 926년보다 1년 앞서 있다. 925년(태조 8)은 발해 禮部卿 大和鈞 등이 고려에 귀부한 해이다.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하기 전 고려에 귀부한 해를 발해의 말년으로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해 건국 연대는『구당서』발해말갈전의 성력(698-699) 연간에 대조영이 스스로 震(振)國王에 올랐다는 기록과『類聚國史』의 문무천황 2년(698) 대조영이 발해국을 세웠다고 한 기록을 근거로 698년으로 본다. 반면『제왕운기』에서는 고구려의 舊將 대조영이 태백산 南城(南柵城)에 근거

39) 임상선,「『帝王韻紀』에 보이는 北方王朝 인식」,『사학연구』103, 한국사학회, 2011, 49면; 김진광,「이승휴『제왕운기』의 고구려·발해 인식」『한국고대사 사료로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62-63면.

한 때를 개국 시점으로 보았다.[40] 대조영이 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한 때를 개국 연대로 본 것이다.

이는 『제왕운기』에서 후고구려의 개국 연대를 890년, 후백제의 개국 연대를 892년으로 본 것과 서로 통한다.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궁예가 왕을 칭한 해는 천복 원년(901)이고, 견훤이 후백제 왕을 칭한 해는 광화 3년(900)이었다. 현행 국사 연표에서는 일반적으로 900년과 901년을 따르고 있다. 890년과 892년은 궁예와 견훤이 각각 신라에 반심을 품고 무리를 모으기 시작한 때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684년은 대조영이 태백산 남쪽에서 무리를 모으기 시작한 해로 볼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사서에서는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제왕운기』 이전에 편찬된 선행 사서에 근거해 684년을 발해의 개국 연대로 본 것이며, 원래 전거는 고려에 귀부한 발해 유민들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삼국사기』 최치원전에서 고구려 유민이 태백산 아래에 근거하여 발해를 세웠다고 한 것이나, 『삼국유사』에서 「삼국사」와 「신라고기」를 인용하며 태백산 남쪽에서 발해가 건국되었다고 한 것도 비슷한 전거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삼국유사』에서 「삼국사」를 인용하며 의봉 3년(678)에 고구려의 남은 무리들이 태백산 남쪽에 모여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한 것[41]은 고려 후기까지 발해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구당서』 발해말갈전에서는 대조영이 東牟山에 웅거하여 왕을 칭했다고 하였지만, 『신당서』 발해전에서는 그보다 앞서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요수를 건너 태백산 동북을 거점으로 성을 쌓고 지켰다고 하여, 발해의 첫 근거지로 태백산 부근을 먼저 언급하였다. 『삼국사기』나 『제왕운기』 등에서는 고구려 유민이 태백산(백두산) 근처에서 결집한 시점을 발해의 건국과 연결해 본 것이다.

---

40) 『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前麗舊將大祚榮得據太白山南城[今南柵城也 五代史曰渤海本粟末靺鞨居榮州東] 於周則天元甲申[羅之滅麗後十七年也] 開國乃以渤海名至我太祖八乙酉[後唐莊宗同光元年也] 擧國相率朝王京誰能知變先歸附 禮部卿與司政卿[禮部卿大和鈞司政卿左右將軍大理著將軍申德大德志元等六百戶來附] 歷年二百四十二其間幾君能守成".

41) 『三國遺事』 권1, 紀異 靺鞨渤海, "三國史云儀鳳三年高宗戊寅 高麗殘孽類聚 北依太伯山下 國號渤海".

925년은 발해인들이 고려에 귀부하기 시작한 해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이해 9월과 12월에 발해 장군 申德, 禮部卿 大和鈞, 세자 大光顯 등 수만 호가 투항해 왔다. 두 사서 모두 발해의 역사에 관해 武則天 때(684-704) 대조영이 요동을 보지한 때부터 서술하였고, 발해의 멸망을 태조 8년(925)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왕운기』와 서로 통한다.[42]

발해의 멸망 과정은 『遼史』 太祖本紀 천찬 4년(925)-천현 원년(926)조에 자세히 전하는데 유득공의 『渤海考』도 이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925년 12월 을해일에 거란의 발해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어, 926년 정월 신미일에 발해왕이 홀한성을 나와 항복하였다. 발해 장령부가 거란에 함락된 시기는 926년 8월 신묘일로 유득공은 이 시점에 발해 땅이 모두 요나라에 귀속되었다고 보았다.[43] 이에 따라 현재 926년을 발해의 멸망 연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제왕운기』에 나타난 발해사 인식은 이승휴의 창안이라기보다 고려 전기 이래 사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925년을 발해의 말년으로 본 것도 선대의 인식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제왕운기』에서는 발해인들이 고려에 귀부한 925년을 더 중시하며 그때를 발해의 말년으로 파악하였다. 발해의 역사가 거란에 의해 끊어지기 전에 고려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발해의 귀부를 신라의 귀부와 같이 고려의 정통성과 연결해 파악한 것으로 다음에 살펴볼 정통론적 역사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4. 정통론적 역사의식과 小中華

42)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8年, "秋九月 丙申 渤海將軍申德等五百人來投 庚子 渤海禮部卿大和鈞均老 司政大元鈞工部卿大福謨左右衛將軍大審理等率民一百戶來附 渤海本粟末靺鞨也 唐武后時高句麗人大祚榮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稱渤海國 幷有扶餘肅愼等十餘國 有文字禮樂官府制度 五京十五府六十二州 地方五千餘里衆數十萬 隣于我境而與契丹世讎 至是契丹主謂左右曰 世讎未雪豈宜安處 乃大擧攻渤海大諲譔圍忽汗城 大諲譔戰敗乞降 遂滅渤海 於是其國人來奔者相繼".
『高麗史節要』 권1, 太祖 8年, "十二月 契丹滅渤海 渤海本粟末靺鞨也 唐武后時 高句麗人大祚榮 走保遼東 睿宗封爲渤海郡王 因自稱渤海國 併有扶餘肅愼等十餘國 有文字禮樂官府制度 五京十五府六十二州 地方五千餘里 衆數十萬 隣于我境 而與契丹世讎 契丹主大擧攻渤海 圍忽汗城滅之 改爲東丹國 其世子大光顯 及將軍申德 禮部卿大和鈞均老 司政大元鈞 工部卿大福謩 左右衛將軍大審理 小將冒豆干 檢校開國男朴漁 工部卿吳興等 率其餘衆 前後來奔者 數萬戶 王待之甚厚 賜光顯姓名王繼 附之宗籍 使奉其祀 僚佐皆賜爵".
43) 『渤海考』 권1, 君考 王諲譔.

『제왕운기』의 국사 체계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단군이나 기자와 달리 위만에 대해선 '奪國' 즉 나라를 빼앗은 군주로 비판하며, 한 무제에 의한 멸망을 "한을 배반하고 준왕을 쫓아낸 결과로 당연한 재앙"(背漢逐準殃宜然)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단군의 전조선과 기자의 후조선과 달리 위만의 조선에 명칭을 따로 붙이지 않은 것도 같은 배경에서 이해된다.

이는 위만을 함부로 왕을 칭한 정통성 없는 군주로 본 것인데, 『삼국사기』 연표에서도 위만의 '참호'를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삼국유사』에선 단군의 고조선(王儉朝鮮)과 위만조선(魏滿朝鮮)을 조목으로 세우고, 중간의 기자에 대해서는 따로 조목을 세우지 않고 고조선조에 포함해 기록한 특징이 있다. 이는 기자조선을 단군조선(고조선)의 시대 속에 포함해 파악한 것이다.[44]

『삼국유사』와 비교해 『삼국사기』와 『제왕운기』는 유교적 정통론에 입각해 위만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정통론이 『제왕운기』 하권에도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선 반론도 있지만,[45] 이승휴가 기자조선의 마지막 준왕의 남천지를 金馬郡(익산)으로 서술한 것은 조선시대에 전개된 삼한(마한) 정통론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46]

> C. (기자의) 41대 손자 이름 準이 남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마저 잃었네.
> 928년간 다스려 유풍과 공적이 전해져 빛나고 두텁네.
> 준은 金馬郡으로 거처를 옮겨 도읍을 세우고 또다시 임금이 될 수 있었네.[47]

위 기록에서 "유풍과 공적이 전해져 빛나고 두텁네"라고 한 부분은 후대까지 미친 기자의 교화를 찬미한 것으로 기자조선의 명맥이 준왕을 통해 이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준왕이 위만에게 쫓겨 남한지역으로 망명하였다는 사실은 『사기』나 『한서

---

44) 박대재, 「『삼국유사』의 고조선·삼한 인식」, 『삼국유사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8, 83면.
45) 정구복, 「이승휴의 역사관」, 『韓國史學史學報』 21, 한국사학사학회, 2010, 6면.
46) 김정배, 「準王 및 辰國과 「三韓正統論」의 諸問題」,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 출판부, 1986, 245면.
47) 『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四十一代孫名準被人侵奪聊去民 九百二十八年理遺風餘烈傳熙淳 準乃移居金馬郡立都又復能君人".

』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3세기 후반에 편찬된 『삼국지』 동이전에 이르러서야 처음 보인다. 『삼국지』에서는 준왕이 '韓地'로 망명하였다고 하였는데, 5세기에 편찬된 범엽의 『후한서』 동이전에서는 준왕이 '마한'을 공파하였다고 하여 기록이 다시 바뀐다. 이런 기록 양상의 변화는 준왕남래설이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기자의 교화가 준왕을 통해 마한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중화주의적 史話로 기자동래설의 연장선상에서 있음을 시사해준다.[48]

이승휴는 준왕이 금마군으로 내려왔다고 하여 기존의 준왕남래설보다 더욱 진일보하여 역사화하고 있다. 이처럼 이승휴가 기자조선의 마지막 준왕의 행적에 주목한 데는 『제왕운기』 상권 말미의 「正統相傳頌」에서 피력한 정통론적 역사의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통상전송」은 상권의 대미를 이루고 있는데, 반고로부터 삼황오제를 지나 夏, 殷, 周, 秦, 漢, 魏, 晉, 南朝(宋・齊・梁・陳), 隋, 唐, 五代, 宋을 거쳐 完顔氏의 金에 이르기까지 '正統之國'이 모두 34국이었고 그 정통이 '我皇'(元皇帝)에게 이어졌다고 노래하였다.

그 분주에서 "拓跋氏의 魏는 비록 천자를 칭하기는 했으나 戎狄에서 왕이 되었을 뿐이고 宋은 晉으로부터 受禪하여 華夏에서 왕이 되었으니, 비록 세력이 비슷하여 '南北史'라 칭하지만, 명분에서는 어찌 정통을 빌릴 수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隋는 宇文氏의 周를 이었고 金은 遼를 무너트리고 나라를 세웠으니 傍傳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두 나라는 처음에는 비록 방전이었지만 수는 陳을 평정하고 금은 송을 이기고 正脈을 얻어 마침내 천하를 통일하였으니 어찌 방전이라 하겠는가"라고 답하고 있다. 융적의 계통이지만 중국을 통일한 왕조도 정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이승휴의 정통론은 기본적으로 華夷論의 명분과 통일왕조의 실세를 아울러 고려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절충된 역사의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휴는 거란족의 요에 비해 여진족이 세운 금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요는 강한 왕조였지만 북송과 병립하였기에 통일 왕조로 여기지 않고, 북송까지 멸망시킨 금을 정통의 통일 왕조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고려

48) 박대재, 「準王南來說의 비판적 검토—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 35, 한국고대학회, 2011.

와 금이 형제의 관계라고 하며, “대금국 황제가 고려국 황제에게 글을 부친다”라는 조서 문구를 인용하여 고려가 황제 국가임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다.[49] 이러한 배경 위에서 고려와 대등한 황제국이었던 금을 중국의 정통 왕조로 인정한 것이다.[50]

화이론에 입각하면 동국사는 동이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통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요동의 조선(동국)을 中朝(중국)와 구분되는 별건곤(별천지)으로 보며 ‘小中華’로 평가한 이승휴의 세계관을 고려하면, 동국사에서도 ‘小正統’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 D. 遼東에 하나의 별천지가 있으니, 땅이 中朝와 구분되어 나뉘었네.
> 큰 파도 물결이 3면을 둘렀고, 북으로는 실과 같이 대륙과 이어졌네.
> 그 가운데 천리가 朝鮮이니, 강산의 형승은 천하에 이름 높네.
> 농사짓고 우물 파는 예의의 나라니, 華人이 이름하여 小中華라 하네.[51]

위의 기록에는 조선(고려)을 중심으로 한 다원적인 세계관과 소중화의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52] 전반부에서는 조선이 중국과 구분되는 요동의 별천지라고 하여 중국과 구분되는 다원적인 천하관이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조선이 중화의 예의를 이은 소중화라고 자부하고 있다.

조선(고려)을 ‘예의의 나라’로 보는 인식은 『한서』 지리지에 보이는 기자가 펼친 禮義・田蠶・織作 및 犯禁 8조의 교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예의의 나라를 근거로 한 소중화의식은 기자의 후조선에서 기원한 것이다. 반면 조선이 중국과 구분되는 별천지라는 다원적 천하관은 요임금과 나란한 때에 조선을 개국한 단군의 전조선과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휴의 이원적 국가의식은 전조선(단군)과 후조선(기자)으로 이루어진 『제왕운기』의 이원적

---

49) 임상선, 앞의 글, 2011, 61면.
50) 김보광, 「『제왕운기』, 새로운 역사 인식의 등장」, 『내일을 여는 역사』 69,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17, 184면.
51) 『帝王韻紀』 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遼東別有一乾坤 斗與中朝區以分 洪濤萬頃圍三面 於北有陸連如線 中方千里是朝鮮 江山形勝名敷天 耕田鑿井禮義家 華人題作小中華”.
52) 채웅석, 「『帝王韻紀』로 본 李承休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한국국학진흥원, 2012, 274-280면.

고조선사 체계와도 연결되는 것이다.[53]

고려에서 '소중화' 용어는 문종 때 朴寅亮의 기록에서부터 확인된다. 박인량은 문종 25년(1071) 民官侍郎 金悌를 수행하여 서장관으로 北宋 使行에 참여하였다. 이때 박인량은 뛰어난 시문 창작 능력을 발휘하여 중국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문종 34년(1080)에는 正使 柳洪을 수행하여 副使로 2차 北宋 사행을 하였다. 박인량의 2차 사행 때는 김부식의 부친 金覲도 사절단에 동행했는데, 중국인들은 박인량과 김근이 지은 시문을 보고 감탄하며 이들의 작품을 모아 '小華集'을 간행하였다. 소화는 소중화를 의미하는 것이다.[54]

박인량은 문종이 사거한 원풍 5년(1082)에 작성한 「文王哀冊」에서, 문왕(문종)의 업적을 칭송하며 "융성함이 상국(중국)에 견줄 만하여 소중화라 불렀네"라고 평하였다.[55] 박인량은 『신라수이전』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으며,[56] 『고금록』을 편찬하기도 하였다.[57] 『고금록』은 현재 전하지 않지만, 박인량의 소중화의식이나 기자조선에 관한 기록이 중심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宣宗 원년(1084) 박인량이 지은 문종의 祭祝文에서도, "왕은 경사로운 전통을 이어 선왕의 봉토를 통치하였고, 箕子의 遺訓을 본받아 예의를 숭상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성의를 다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58] 이는 박인량이 기자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그사이 문종 30년(1076) 崔思諒 등의 고려 사행이 송에 들어가자, 송

53) 박대재,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65, 고려사학회, 2016, 42면.

54) 정선모, 「北宋使行을 통해서 본 朴寅亮의 문학사적 위상」, 『韓國漢文學硏究』 46, 한국한문학회, 2010, 12-51면.

55) 『東文選』 권28, 文王哀冊(朴寅亮), "龍孫嗣興 鴻業長盛 仁孝紹圖 嚴明莅政 巍乎厥德 煥乎其文 神機電斷 睿藻霞分 殷輅周冕 舜日堯雲 樂均韶勺 道貫典墳 哲於知人 威以化狄 左衽易冠 西樓獻冊 謙尊而光 招諭斯格 帝札丁寧 使華絡繹 聲名烜赫 文物芬葩 比盛上國 稱小中華 祖功宗德 榮國光家 三十八載 不曰盛邪 嗚呼哀哉".

56) 『新羅殊異傳』의 저자에 대해서는 최치원설, 박인량설 등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선 小峯和明・增尾伸一郎 編譯, 「解說」, 『新羅殊異傳—散逸した朝鮮說話集』(東洋文庫809), 平凡社, 2011, 220-221면 참조.

57) 『高麗史』 권95, 朴寅亮傳, "寅亮文詞雅麗 南北朝告奏表狀 皆出其手 嘗撰古今錄十卷 藏祕府".

58) 『高麗史』 권10, 世家10 宣宗 元年 甲子 秋8月.

에서는 이들이 머무르는 곳을 '小中華之館'이라고 칭하며 우대하였다. 송나라 문인들이 고려를 '小華' 또는 '小中華'라고 부른 것은 고려 문종 때(1047-1082)부터인 것으로 보인다.[59]

이승휴보다 앞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60]과 金坵(1211-1278)의 「上座主金相國謝衣鉢啓」[61]에서도 소중화적 자기의식이 확인된다. 물론 13세기 전반에 활동한 이규보는 몽골을 '戎胡'로 적대시하고 南宋을 중화로 규정한 화이론을 견지하고 있었다. 김구 역시 13세기 전반까지는 몽골을 '寇·虜'라 칭하며 적개심을 나타내다가, 강화 이후에는 원을 중화로 변환하여 인식하였다.[62] 이런 점에서 이승휴의 소중화의식은 원을 중화 정통으로 규정하는 보다 현실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소중화는 神宗 때 송이 처해 있었던 국제상황에서 고려를 특별히 예의의 국가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북송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였다.[63] 고려가 현종 이래 단절되었던 송과의 관계를 50여 만에 재개한 문종 25년(1071) 무렵은 송 신종이 거란에 대항하기 위해 고려와 제휴하던 시기였다. 당시 고려와 송의 단교를 강요했던 거란은 종실 내부의 반란으로 국력이 기울어 가고 있었다.

이 무렵 희령(1068-1077) 연간에는 신종에 의해 王安石의 新法이 채택되어 이른바 신법당의 1차 집권이 시작되었다. 이어 원풍(1078-1085) 연간에 신법 개혁이 한층 강화되면서 고려와 연합하여 거란을 공격하려는 신법당의 전략에 의해 司馬光, 蘇軾 등 구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사신을 극진히 예우하였다.[64]

---

59) 『東史綱目』 卷7下, 文宗 30年 秋8月. 『高麗史』 권120, 金子粹傳에도 宋이 高麗使節의 館을 '小中華之館'이라고 칭했다고 한 기록이 보인다.

60) 『東國李相國集』 권17, 古律詩 題華夷圖長短句, "君不見華人謂我小中華此語眞堪採".

61) 『東文選』 권46, 啓 上座主金相國謝衣鉢啓(良鏡), "儒道盛行世不殊乎大上古海邦雖僻人皆謂之小中華".

62) 윤은숙, 「13세기 高麗 지식인의 몽골 인식 비교—李奎報·金坵와 李承休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79,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21, 145-149면.

63) 近藤一成, 「宋代神宗朝の高麗認識と小中華-曾鞏をめぐって」, 『全北史學』 38, 전북사학회, 2011, 170면.

64) 정수아, 「高麗中期 對宋外交의 再開와 그 意義—北宋 改革政治의 수용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149-170면.

고려의 숙종(1096-1105) 시기와 예종(1106-1122) 초기는 송의 신법을 수용하여 왕권강화와 부국강병 등 공리주의적 신법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였다.[65] 이 시기 중 숙종 7년(1102) 西京(평양)에 기자를 제향하기 위해 箕子祠를 설치하고 국가 祀典에 포함시킨 것은[66] 문종 이래 형성된 소중화의식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67] 명종 8년(1178)에는 箕子祠에 油香田 50결을 지급하였다. 그 뒤 箕子祠 제사는 중단되기도 했으나, 충숙왕 12년(1325)에 부활되었다. 공민왕 원년(1352)에 평양부에 사당을 세워 기자를 제향하게 하였고, 공민왕 5년과 20년에도 기자사당을 수리하여 수시로 제향하였다.[68]

기자에 대한 致祭가 이루어진 숙종, 충숙왕, 공민왕 시기는 공히 대내적으로 개혁정치가 추진되고, 대외적으로는 북방 진출이 모색되면서 보수적인 것과 진취적인 것의 대립, 사대적인 것과 자주적인 것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던 시대였다.[69] 이는 기자 제향이 단지 사대주의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려를 중심으로 한 다원적인 세계관 내지 소중화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해준다.

『삼국사기』 연표에 나타난 김부식의 기자조선 중심 역사 인식은 소중화의식의 선구로 이해되기도 하며,[70] 기자조선을 중심으로 한 소중화적 역사관은 고려 말 李穀·李齊賢·崔瀣 등에 의해 더욱 진전되었다.[71] 원·명 교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고려의 사대부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주자학을 수용하여 개혁정치를 추진하고 자신이 중심이

65) 채웅석, 「12세기 초 고려의 개혁추진과 정치적 갈등」, 『韓國史硏究』 112, 한국사연구회, 2001, 40-51면.
66) 『高麗史』 권63, 志17 禮志5 雜祀, "十月壬子朔禮部奏我國敎化禮義自箕子始而不載祀典乞求其墳塋 立祠以祭從之". 『高麗史』 鄭文傳에 따르면, 鄭文이 숙종을 따라 서경에 갔다가 箕子祠 건립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67) 박대재, 앞의 글, 2016.
68) 이강한, 「1325년 箕子祠 祭祀 再開의 배경 및 의미」, 『한국문화』 5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3-26면.
69) 유경아, 「李承休의 生涯와 歷史認識」, 『高麗史의 諸問題』(변태섭 편), 삼영사, 1986, 558면.
70) 조성을, 「高麗時代의 中國史 認識」, 『韓國史學史學報』 16, 한국사학사학회, 2007, 12면.
71) 최봉준, 「여말선초 箕子 중심의 역사계승의식과 조선적 문명론」, 『韓國史學史學報』 31, 한국사학사학회, 2015, 135-139면.

되는 소중화의 지배질서를 확립하게 된다.[72]

고려시대의 기자계승의식 내지 소중화의식은 사대주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 기자를 표상으로 한 소중화적 자기의식을 통해 북방의 요·원과 맞서려는 이원적 천하관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승휴가 단군과 함께 기자를 존중한 것도 이러한 이원적 세계관의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조선(고려)을 소중화로 인식한 이승휴의 세계관에서는 단군-기자로 이어진 동국의 정통이 참주인 위만이 아니라 준왕을 통해 남쪽으로 이어졌다가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거쳐 다시 고려로 계승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제왕운기』에서 경순왕이 태조에게 귀부한 태조 18년을 단기로 3288(3268)년이라 한 것은 단군으로부터 기원한 국사의 정통이 고려 태조에게 이어졌다고 보는 소중화적 역사계승의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발해의 멸망 연대를 925년에 설정한 것도 부여-고구려-발해로 이어진 북방사의 흐름이 발해인들의 귀부에 의해 고려로 통합되었거니와 그 고지를 차지한 거란(요)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역사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통상전송」에서 요나라를 '正統之國'으로 보지 않은 것과 서로 조응되는 부면이다.

이승휴는 원종의 승하를 고하러 원나라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충렬왕으로 하여금 원 세조를 설득하여 고려가 고유한 舊制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73] 이처럼 이승휴는 고려의 독자적인 체제 유지에 관심을 쏟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에 대한 사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74] 동시에 이승휴의 대원 인식은 어디까지나 고려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혼을 통해 고려 왕위를 보존하려 했던 원종의 생각과 기본적으로 일치한 것이었다.[75] 소중화는 사대와 자립의 접점을 지향한 이승휴의 자기의

72) 도현철, 「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119-120면.

73) 『高麗史』 권106, 李承休傳, "承休以爲世子爲駙馬戎服將事已久 其服禮章勢難自斷 遂諷世子上言本國衣冠典禮始末 帝命丞相勅曰 卿旣襲爵爲王往就國 凡爾祖宗定制 毋或墜失依舊行之".

74) 변동명, 「이승휴의 『제왕운기』 찬술과 그 사서로서의 성격」, 『震檀學報』 70, 진단학회, 1990; 「이승휴, 빈왕록」, 『한국사시민강좌』 42, 일조각, 2008, 28면.

75) 윤은숙, 「大元 使行을 통해 본 李承休의 현실 인식」,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 2013, 308면.

식이었다.

원종 6년(1265) 몽골로 사행 가는 洪佇端을 위한 전별시에서 "我聖(원종)께서 五服을 순행하심에 四海에 昇平曲이 울려 퍼지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천만번 뽑고 뽑아 마음 편히 보내네"라고 하여,[76] 고려를 중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국가로 보고 있는 점도 사대를 전제로 한 소중화의식과 통하는 부분이다.

이승휴의 소중화를 중심으로 한 정통론적 역사의식은 박인량의 『고금록』, 김부식의 『삼국사기』 등 기자조선을 중시한 선대 역사서의 인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승휴의 역사의식은 기자를 존중하면서도 단군을 국사의 시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교적 사대주의라고만 볼 수 없으며, 중국과 조선을 구분해보는 이원적 세계관의 접점인 소중화에 단군과 기자를 모두 중시하는 이원적 역사관이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단군(전조선)과 기자(후조선)의 역사적 전통을 아울러 중시하였다. 『제왕운기』 권두의 진정인표에서 동국에선 단군으로부터 고려로 군왕의 전수가 이어졌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 단군을 국사의 開祖로 본 것은 분명하나, 기자 역시 '後朝鮮祖'로 '自立國'하여 41대에 이르기까지 遺風과 餘烈이 찬연히 전해졌다고 칭송하였다.

단군과 기자를 아울러 존숭한 것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는 다른 입장이었다. 『삼국사기』는 기자를 중시하고, 『삼국유사』는 단군을 중시하였다면 『제왕운기』에서는 양자를 함께 존숭하였다. 이처럼 단군과 기자를 국사의 2대 근원으로 존숭한 역사관은 단군기원과 소중화의식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개국의 시조로서 단군과 예의의 시조로서 기자를 아울러 존숭한 이승휴의 역사관은 이원적인 소중화적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왕운기』의 고조선사 인식은 조선시대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의 3조선설이 성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기자와 위만 또는 단군과 위만이 중시되며 아직 3조선사의 체계가 갖추

76) 『動安居士行錄』 권1, 謝餞詩 幷序, "我聖巡五服 聽奏四海昇平曲 要於他境顯國美 千選萬選聊送似".

어지지 못하였다. 『제왕운기』에서도 위만이 참주로 인식되어 전조선과 후조선을 계승한 제3의 조선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위만 3대가 다스린 시대가 별도로 설정되면서 단군-기자-위만의 3조선사 체계가 성립하는 데 단초를 제공하였다.[77]

『제왕운기』의 문장이 본조(고려)는 5언으로, 앞선 시기는 모두 7언으로 서사한 것에 대해 이승휴는 『제왕운기』 하권의 대미에서 "대개 夫子(공자)가 춘추를 편수한 뜻"과 같다고 하였다.[78] 여기서 선악을 논해 대의명분을 밝히고 후세의 감계로 삼고자 하는 유가적 춘추필법이 『제왕운기』의 기조임을 엿볼 수 있다. 소중화는 이승휴의 유가적 역사의식을 대변하는 개념이며, 이는 이승휴의 창안이라기보다 선대의 역사의식을 발전시킨 '述而不作'의 성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승휴는 단군의 전조선과 기자의 후조선이 존속했던 연대를 명확히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동안 등한시하던 단군과 기자의 연대 편년에 주목하게 된 사유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고려의 소중화의식에 영향을 주었던 중국인들의 사유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주희는 송나라 사람들이 "요·순 두 황제와 하·은·주 삼대로 돌아가려는 생각이 당나라 사람들보다 강했다"고 말했고, 이런 견해는 원대 초기 郝經이 제시한 후삼대설, 즉 송을 한·당과 나란한 후삼대로 보는 인식의 연원이 되었다. 특히 북송 인종 때(1022-1063)인 11세기 전반에는 정치사상 측면에서 한·당을 넘어 '삼대'로 돌아가려는 분명한 경향을 지녔다. 삼대로 돌아가자는 개혁적 논의는 인종 중기 이래 끊임없이 이뤄졌고, 그것이 신종 희령(1068-1077) 연간 변법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79]

---

77) 박대재, 「고조선사 체계의 재인식」, 『한국학논총』 50, 한국학연구소, 2018, 298-299면. 三朝鮮說은 鄭道傳의 『朝鮮經國典』(1394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權近·李詹·河崙의 『東國史略』(1403년)에서 체계화되고 『東國通鑑』(1485년)으로 이어진 후 통설이 되었다.

78) 『帝王韻紀』 卷下, 本朝君王世系年代, "或難曰 子之編修帝王韻紀 皆以七言敍事而至於本朝則用五言者何也 其有指乎 答且詩之作始於五言而終於七言者也 今夫制作之意 始起於本朝故終之以所起之始 蓋夫子修春秋之志也".

79) 위잉스(余英時), 「'삼대'로 돌아가자—송대 정치문화의 시작」, 『주희의 역사세계』(상), 글항아리, 2015, 272-288면.

이처럼 요순·삼대로 돌아가자는 인식이 팽배했던 북송 시기에 장형의 『편년통재』(1074), 유서의 『통감외기』(1078) 등과 같은 요순·삼대의 연대를 밝힌 역사서들이 나왔다. 이승휴가 이들을 참조하여 단군과 기자의 연대를 밝히는 데 노력한 것도 위와 같은 尙古의 역사의식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요·순·하·은 시대에 해당하는 단군의 전조선과 주대에 해당하는 기자의 후조선은 소중화 조선의 요순·삼대로써 고려의 역사적 근원인 동시에 돌아가야 할 귀결점이었다. 『제왕운기』의 대미에서 "본조에서 시작하여 일어난 곳에서 끝마치는 것이 대개 공자가 춘추를 편수한 뜻"이라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생각된다.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통해 국사의 근원이자 지향점인 단군과 기자의 시대를 전설이 아닌 역사의 시대로 노래하였다. 신라가 고려에 귀부한 태조 18년(935)이 단군 원년으로부터 3,268년 되는 해라는 단군기원 인식이나, 기자의 유풍이 동국의 예의로 이어졌다고 보는 소중화의식에는 상고적 역사의식이 깔려 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이승휴의 역사의식을 『제왕운기』에 나타난 국사의 편년 체계, 단군기원, 정통론, 소중화의식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승휴는 국사 편년에서 무엇보다도 단군(전조선)과 기자(후조선)의 연대 편년에 몰두하였는데, 이것은 단군과 기자를 중국의 요순과 삼대에 비견하여 중시하는 상고적 역사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승휴만의 창안이라기보다 11세기 이후 북송의 역사서와 그에 영향받은 고려의 국사에 나타난 상고의식이 투영된 결과이다.

다만 단군과 기자를 국사의 근원이자 지향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단군과 기자의 시대를 전설이 아닌 역사의 시대로 서술한 『제왕운기』 이전 선행 역사서가 현재 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승휴의 역사서술이 갖는 사학사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할 만하다. 신라가 고려에 귀부한 태조 18년(935)이 단군 원

년으로부터 3,268년이 되는 해라는 단군기원 인식이나, 기자의 유풍이 동국의 예의로 이어졌다고 보는 소중화의식에도 상고적 역사의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상고적 역사의식은 정통론의 전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기자의 후손인 준왕이 금마군(익산)으로 옮겨오면서 기자로부터 비롯된 소중화의 정통이 북쪽의 위만이 아니라 남쪽의 삼한 지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통론적 역사의식은 조선시대에 들어가 삼한정통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소중화는 이승휴의 이원적 세계관과 정통론적 역사의식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조선(고려)을 중조(중국)와 구별되는 별건곤(별천지)으로 보는 사유의 바탕이 된다. 고려에서 소중화 개념은 문종 시기 북송과의 교류에서 활약한 박인량, 김근 등의 문장에서부터 확인된다. 박인량은 『고금록』『신라수이전』 등을 편찬하였으며, 김근은 『삼국사기』 편찬을 주도한 김부식의 부친이다. 소중화는 「동명왕편」을 지은 이규보와 「삼대실록」 및 「고종실록」 편찬에 참여한 김구의 문장에서도 중국과 고려를 구별해 보는 국가의식의 표현으로 확인된다.

이승휴의 역사의식은 박인량에서 김구로 이어진 소중화 개념에 응축되어 있으면서도 기자에 앞서 단군을 국사의 근원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국사의 시원으로 기자를,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을 중시한 반면, 『제왕운기』에서는 단군과 기자를 아울러 중시하였다. 이승휴는 단군을 국사의 개조로, 기자를 소중화의 시조로 동시에 존숭하였다. 여기에 이승휴의 역사의식이 갖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선 초기에 성립된 3조선사 체계의 밑바탕이 되었다.

▮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李相國集』
『東文選』
『東史綱目』
『動安居士集』
『渤海考』
『三國遺事』
『櫟翁稗說』
『帝王韻紀』
『編年通載(存四卷)』, 四部叢刊三編史部, 上海書店, 1985.

강석근, 「이승휴의 시문학 고찰」, 『동악어문론집』 22, 동악어문학회, 1987.
_____, 「응제시(應製詩)의 관점에서 살펴본 『제왕운기』와 이승휴의 역사인식」, 『한국고대사 사료로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김경수, 「帝王韻紀의 硏究—板本을 중심으로—」, 『帝王韻紀』, 역락, 1999.
김남중, 「『제왕운기』에 인용된 단군본기의 저자와 성격」, 『한국학연구』 74, 한국학연구소, 2020.
김보광, 「『제왕운기』, 새로운 역사 인식의 등장」, 『내일을 여는 역사』 69,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2017.
김상기,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 출판부, 1985.
김상현, 「『三國遺事』의 刊行과 流通」, 『韓國史硏究』 38, 한국사연구회, 1982.
_____, 「高麗後期의 歷史認識」, 『韓國史學史의 硏究』(한국사연구회 편), 을유문화사, 1985.
_____,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韓國古代史硏究』 74, 한국고대사학회, 2014.
김인호, 「이승휴의 역사인식과 사학사적 위상」, 『震檀學報』 99, 진단학회, 2005.
김정배, 『韓國古代의 國家起源과 形成』, 고려대 출판부, 1986.
_____, 「檀君神話와 관련된 『古記』의 性格」,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김진광, 「이승휴 『제왕운기』의 고구려·발해 인식」, 『한국고대사 사료로서의 제왕운기』, 세창출판사, 2019.
김철준, 『韓國史學史硏究』, 서울대 출판부, 1990.
노명호,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東國李相國集』(역사학회 편), 일조각, 2000.
도현철, 「원명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 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리상호, 「단군 설화의 년대 문제」, 『력사과학』 5, 조선력사편찬위원회, 1962.
박대재, 「『三國遺事』 판본의 몇 가지 문제점」, 『點校 三國遺事』, 고려대 출판부, 2009.
_____, 「準王南來說의 비판적 검토—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 35, 한국고대학회, 2011.
_____, 「檀君紀元과 「古記」」, 『韓國史學報』 61, 고려사학회, 2015.
_____, 「箕子朝鮮과 小中華」, 『韓國史學報』 65, 고려사학회, 2016.

_____, 「고조선사 체계의 재인식」, 『한국학논총』 50, 한국학연구소, 2018.
_____, 「『삼국유사』의 고조선·삼한 인식」, 『삼국유사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8.
박인호,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방선주, 「韓·中 古代紀年의 諸問題」, 『아시아문화』 2,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변동명, 「이승휴의 『제왕운기』 찬술과 그 사서로서의 성격」, 『震檀學報』 70, 진단학회, 1990.
_____, 「이승휴, 빈왕록」, 『한국사시민강좌』 42, 일조각, 2008.
서영대, 「檀君關係 文獻資料 硏究」 『檀君—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 출판부, 1994.
위잉스(余英時), 『주희의 역사세계』(상), 글항아리, 2015.
유경아, 「李承休의 生涯와 歷史認識」, 『高麗史의 諸問題』(변태섭 편), 삼영사, 1986.
윤은숙, 「13세기 高麗 지식인의 몽골 인식 비교—李奎報·金坵와 李承休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79,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21.
_____, 「大元 使行을 통해 본 李承休의 현실 인식」,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 2013.
이강래,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1996.
이강한, 「1325년 箕子祠 祭祀 再開의 배경 및 의미」, 『한국문화』 5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이종문, 「『帝王韻記』의 原典에 對한 몇 가지 疑問點」, 『고려시대 역사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이형우, 「13세기 고려 지식인 이승휴의 對元인식」,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3.
이홍직, 『韓國古代史의 硏究』, 신구문화사, 1971.
임상선, 「『帝王韻紀』에 보이는 北方王朝 인식」, 『사학연구』 103, 한국사학회, 2011.
정구복, 『韓國中世史學史(Ⅰ)』, 집문당, 1999.
_____, 「이승휴의 역사관」, 『韓國史學史學報』 21, 한국사학사학회, 2010.
정선모, 「北宋使行을 통해서 본 朴寅亮의 문학사적 위상」, 『韓國漢文學硏究』 46, 한국한문학회, 2010.
정수아, 「高麗中期 對宋外交의 再開와 그 意義—北宋 改革政治의 수용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정재호, 「歷代歌類攷」, 『語文論集』 9, 민족어문학회, 1966.
조남호, 「1930년대 대종교 계열 학자들의 이승휴와 제왕운기에 대한 연구」, 『仙道文化』 28,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2020.
조성을, 「高麗時代의 中國史 認識」, 『韓國史學史學報』 16, 한국사학사학회, 2007.
진성규, 「李承休의 『賓王錄』 연구」, 『白山學報』 85, 백산학회, 2009.
채웅석, 「12세기 초 고려의 개혁추진과 정치적 갈등」, 『韓國史硏究』 112, 한국사연구회, 2001.
채웅석, 「『帝王韻紀』로 본 李承休의 국가의식과 유교관료정치론」, 『국학연구』 21, 한국국학진흥원, 2012.
최봉준, 「여말선초 箕子 중심의 역사계승의식과 조선적 문명론」, 『韓國史學史學報』 31, 한국사학사학회, 2015.
하현강, 「高麗時代의 歷史繼承意識」, 『梨花史學硏究』 8, 이화여대 사학연구소, 1975.
황의돈, 『海圓文稿』(하), 문원사, 2007.

近藤一成,「宋代神宗朝の高麗認識と小中華一曾鞏をめぐって」,『全北史學』38, 전북사학회, 2011.
小峯和明・增尾伸一郎 編譯,「解說」『新羅殊異傳一散逸した朝鮮說話集』(東洋文庫809), 平凡社, 2011.
原田一良,「『本紀』檀君卽位年の復元」,『朝鮮學報』184, 朝鮮學會, 2002.
馬國翰,『玉函山房輯佚書』, 文海出版社, 1967.
王仁俊,『玉函山房輯佚書續編三種』, 上海古籍出版社, 1989.
袁珂,『中國神話傳說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

【Abstract】

Yi Sŭnghyu's Chronology of National History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Park, Dae-Jae*

In *Chewang Un'gi* (帝王韻紀), Yi Sŭnghyu (李承休) tried to set up the annual chronology of the successive kings. He clearly revealed the chronicles of the Old Chosŏn history that Tan'gun founded his state in the first year of Yao(堯)'s reign, a Mujin year, and retired after 1,048 years of his reign. According to him, Kija(箕子) came and established his own state after 164 years. He also revealed that Kija Chosŏn lasted for 928 years, and Wiman Chosŏn for 88 years. Based on this chronicle, he accentuated the significance of the epoch of Tan'gun calender by defining the eighteenth year of King Taejo(935 AD), the year when King Kyŏngsun of Silla submitted to Koryŏ, as 3,268th year after the origin year of Tan'gun. *Chewang Un'gi* is the oldest historical record that has the epoch of Tan'gun calender in existence. By counting the years in the chronicle back, the origin year of Tan'gun is 2,333 BC, which is the same as today's standard for Tan'gun calender.

Yi Sŭnghyu revered Tan'gun as a progenitor of the national history, and Kija as a founder of 'Little China (小中華).' Such historical consciousness of legitimism focusing on the ideology of Little China projects the consciousness of previous historical texts such as Pak Illyang's *Kogŭmnok (古今錄)*, Kim Pusik's *Samguk Sagi (三國史記)* and others. Yi Sŭnghyu's historical consciousness could not be interpreted only as an ideology of 'serving the great(事大)' since he prioritize the reverence to Tan'gun as the progenitor of the national history before Kija. His historical consciousness was condensed into the ideology of Little China, which was a dual world view that dichotomized it between China and Chosŏn. The Little China was a notion that represents his Confucian historical consciousness. The notion could be understood as an alternative expression for a dual world view, which was developed from the plural world view in the early period of Koryŏ.

*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

Keywords: Yi Sŭnghyu, Chewang Un'gi, Tan'gun, Kija, Wiman, the Former Chosŏn, the Later Chosŏn, epoch of Tan'gun calender, Little China.

접수일: 2021.12.31. ‖ 심사일: 2022.01.11. ‖ 게재확정일: 2022.02.05.